전국 유일 11개월 연속 출생아 수 ↑…청년이 돌아온다

광주, 민주화 도시 넘어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5〉 인구증가 도시의 힘이다

정부도 인정 광주 대표 육아정책
전국 최우수 정책 선정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등
출산·육아 정책 발전시켜야

2020년 기준 1000만명을 넘었던 우리나라 청년(19~34세) 인구가 2040년이면 600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난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결과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은 한 국가를 넘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지역별로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시가 유일할 정도다.

실제 광주시는 민선 7기 말로 접어든 요즘, 도심 곳곳에서 100년 미래 발전을 이끌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한때 젊은 인구이탈 등으로 인구 급감을 고민했던 광주는 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굵직굵직한 미래산업을 유치하면서, 젊은층 유입 등 겹 경사를 누리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광주 공동체가 키워내자"를 모토로 마련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시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사례로 인정받는 등 전국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인정한 광주 출산정책=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특·광역시 1위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아이낳아 키우기 맘 편한 광주' 사업은 일반국민의 체감도가 기준인 국민평가에서 전국 대표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아이낳아 키우기 맘 편한 광주'는 앞서 2021년 전반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에서 전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당시 전국 35개 기관의 정책이 수상후보에 올랐는 데,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의 출산정책이 이처럼 전국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정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한 결과, 올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계 출생아수는 7505명으로, 전년 대비 11.1%인 751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만 유일하게 11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이다.

◇생애 주기별 6단계 지원 정책 호응=그동안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19년 7월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정책시리즈 Ⅰ·Ⅱ·Ⅲ을 발표했다. '맘 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6단계 지원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과 가족이 살기좋은 아이키움 행복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축하금(100만원)과 24개월까지 육아수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육아수당, 임신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및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 조성지원 사업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다. 여기에 2년 연속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에 나선 결과, 난임부부 1000여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지난 1월 첫 시행했는데, 1개월만에 200명이 넘게 신청했다.

◇독특한 출생아 증가 비결 배우기 열풍=전국에서 광주시의 출생아 수 증가 비결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광주는 2018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자수가 출생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겪는 등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광주시는 2019년 다양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광주형 출산·보육 지원 정책도 추켜들었다. 시는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청년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설계했다.

특히 전문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가 산모가정을 직접 방문·관리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등 기존에 없던 신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유방 관리와 수유자세부터 영아돌연사증후군 방지를 위한 신생아 수면 자세 관리, 산모 신체·정신 건강 관리 등 젊은 부부를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광주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곳에서 AI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체질개선에 성공했고,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GGM 등이 본격 가동하면서 우수한 젊은 인력이 몰려오고 있다"며 "단순히 출생아 수 증가만을 육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청년이 아이를 낳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지역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39억 원을 기탁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인재·문화예술 육성 39억원 기탁

지역 상생 가치 실현 앞장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도문화재단에 각각 25억원, 14억원 등 모두 39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공사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도내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공적 역할에 나선 것이다.

도청 귀빈실에서 지난 19일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남문화재단 이사장, 전남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은 25억원을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학생들의 생활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희망전남 특별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다. 전남문화재단은 14억원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창작육성 준비금, 시군별 특화 콘텐츠 지원,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에 쓴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2020년, 2021년에도 각 25억원씩 모두 50억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등 1만2000여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철신 사장은 "공사 직원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으로 환원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행복전남을 만들수 있도록 전임직원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초 '토의형 민방위 훈련'

행안부·서구·치평동 민방위대 등 20곳 참여

침투도발 등 사태 발생 시
단계별 임무 수행절차 토의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등을 감안한 '토의형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20일 "적의 침투도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그동안 실시해온 대피훈련과 달리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전국 최초로 임무수행 절차 등에 대해 토의하는 토의형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적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상무지구 빛고을 고객센터 건물이 반파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가장 먼저 민간드론운용단이 긴급 출동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 상황실로 송출하고, 사태수습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현장 토론훈련에는 온나라 영상을 통해 행정안전부, 광주시, 서구, 광주도시공사 직장민방위대, 치평동 지역 민방위대 등 2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제대별 역할과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 절차 등을 토의했다.

특히 실제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협업 기능 강화, 각 유관기관별 역할과 대응방법, 후속 조치 등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 위기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 상황발생 단계 ▲비상상황 전파단계 ▲비상상황 초기 상황판단회의와 중앙주민보호 대책본부와 광주시주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상황대응 단계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방위 토의형 훈련을 통해 국가위기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점검 및 돌발적 재난의 적응력을 높이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적극 발굴해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민방위 훈련을 재난대비훈련 6회, 주민 대피훈련 2회 등 총 8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토의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국가위기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의 신속한 위기대처 능력 등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민방위 대비태세를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의 행복을 통한 전남경제 활성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합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사항 해결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안내(061)

순천지점(곡성, 고흥, 보성) : 729-0600
광양지점(구례) : 794-3860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1577-9616
목포지점(무안, 신안, 영암) : 285-0745
나주지점(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 333-9421
여수지점 : 642-2471
해남지점(강진, 완도, 장흥, 진도) : 535-9333